

## 인터넷 문학의 대두를 통해 바라본 중국 지식 네트워크의 지형 변화

최재용(서울대학)

### 1. 서론

인터넷 문학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거의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에서 인터넷 문학의 발전 양상은 대단히 독특하다. 한국에서 인터넷 문학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잠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준 이후로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의 인터넷 문학은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와 성공적인 상업화를 통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인기 작품의 조회수는 수천만 회에 달하며 작가들의 수입 역시 역대를 호가한다. 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수십만, 수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릴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비디오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에 소재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인터넷 문학' 혹은 '사이버 문학'이라고 지칭하는 문학적 현상을, 중국에서는 '망락문학网络文学', 즉 '네트워크 문학'이라고 부른다. 그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마다, 용어의 사용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이 문학적 현상이 '네트워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국의 주류 인터넷 문학 활동은 그 자체로 네트워크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대형 문학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성다盛大라는 대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전체 문학 사이트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문학 활동을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다만 인터넷 문학이 형성하고 있는 독자적인 네트워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이 인접한 다른 네트워크와 형성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 상호작용의 과정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면모를 개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주류문학'과 인터넷 문학이라는 두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 '지식'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인터넷 문학의 '네트워크성'

#### 1) 네트워크성

인터넷 문학이란 무엇인가? 대단히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의 인터넷 문학을 논할 때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외연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 그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학적 활동을 중국 인터넷 문학이라고 두자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말해 이것은 정의라기보다는 범위 설정에 더 가까운 것이지만, 무리하게 그 속성에 대한 정의를 하려다 인터넷 문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문학의 정의를 내리는 데 지면을 소모하기보다는, 그 네트워크로서의 속성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필자는 예전에 인터넷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네트워

크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모종의 문학적 실천이 네트워크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특성의 총칭이다.<sup>2)</sup> 예를 들어 루쉰의 《狂人日记》는 그 자체로는 인터넷 문학이 아니지만, 그것을 인터넷 문학 사이트에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게재하고, 거기에 각종 비평 및 자료를 링크한다면, 또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논평 및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네트워크성을 획득하여 인터넷 문학이 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형 문학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학적 활동들——창작, 비평, 인기투표, 추천, 팬픽, 댓글, 동호회 및 팬클럽 활동 등등——은 모두 인터넷 문학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문학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으로서, 동태적인 네트워크로서 다루는 것이다. 그 정의상 원래 네트워크에는 단일한 중심이 없으며, 단일한 주제도 없다. 하지만 그 구성원이나 조직 등이 상대적으로 가시적, 고정적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달리, 인터넷 문학의 '네트워크성'은 훨씬 노골적이고 강력하다. 문학적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 문학이 기존의 문학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문학 네트워크'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2) 예술계

위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네트워크성을 연결지어 논했다. 하지만 사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위 가운데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기존의 문학 네트워크'라고 부른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때에도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으며 지금도 모종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협회나 문련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각종 문학잡지, 대학, 비평계, 출판계 등이 모두 중국 문학이라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 개념을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적용해서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지는 전자적 네트워크와 기존의 통신 수단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노드node' 사이의 '링크link'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즉각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다. 문자 그대로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인터넷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런 변화는 결코 양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다만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현대 중국 지식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만을 다루어서는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도입하고자 한다. 바로 '예술계'라는 개념이다. 필자는 '예술계the art world'라는 용어를 하워드 S. 베커로부터 빌려 왔다. 그는 예술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술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예술계란 최종적인 형태로 예술 작품이 생산되는 데 그들이 공유하는 관습적인 이해를 사용함으로써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협동적인 활동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sup>3)</sup>

2) 쑹조, 《中国网络文学研究的困境与突破》, 북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4쪽 참조.

3) Becker, "A New Art Form : Hypertext Fiction" ([http://www.uv.es/~fores/programa/becker\\_hypertextfiction.html](http://www.uv.es/~fores/programa/becker_hypertextfiction.html)). "An art world, to give a

1) 중국 인터넷 문학 사이트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网络文学发展史》(欧阳友权编,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8), 특히 1장(文学网站)과 10장(网络文学产业)을 참고할 것.

이렇게 본다면, 각각의 독자적인 예술 영역은 모두 자신의 예술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중국 현대문학계, 즉 소위 말하는 '주류문학'이 일찍이 스스로의 '네트워크', 즉 예술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 문학' 역시 나름의 예술계를 형성하였고 우리가 논하는 '인터넷 문학'도 마찬가지이다<sup>4)</sup>. 즉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가 지금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하이퍼텍스트 픽션은 새로운 것이다"<sup>5)</sup>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분석은 중국 인터넷 문학의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인터넷 문학을 전통적인 문학의 연장선, 혹은 변종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계, 즉 인터넷 문학과 관련된 생산, 분배, 유통, 수용, 사용, 감독, 평가의 체계를 갖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문학의 생산-유통-소비-평가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인쇄 문학의 그것과는 대단히 다르다. 특히 성다그룹이 주요 인터넷 문학 사이트를 모조리 사들여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이윤추구 모델을 확립한 이후, 인터넷 문학은 — 비록 인쇄문학과는 관계는 더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지만 — 과거 문학잡지, 정부, 작가협회, 대학교수 및 평론가 등에 의해 비교적 폐쇄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기존 문학의 시스템과는 현저히 구분되는 독자적 시스템, 즉 예술계를 형성하였다.<sup>6)</sup>

이렇게 양자를 공히 '예술계'로 간주한다면(예술계도 일종의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의해 가능해지는 새로운 '네트워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문학계와 인터넷 문학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주류문학'과 '인터넷 문학' 모두에 대해 사용할 경우 인터넷 문학이 갖는 '네트워크성'을 충분히 강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각 예술 분야가 형성하는 인적, 제도적 구조를 총칭할 때는 '예술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인터넷 문학을 일종의 '기술'이나 '문화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기존의 순문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일종의 예술 양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서로 다른 '예술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상, 그리고 그 함의를 소략하게나마 살펴해보도록 한다.

### 3. '주류문학'과 인터넷 문학의 상호작용

#### 1) 대타자 '주류문학'의 호명

치덴起点(www.qidian.com) 등의 대형 문학 사이트는, 비록 출판, 게임, 광고 등의 다른 인접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립적인 문화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클릭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유료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

technical definition, consists of the network of cooperative activity involving all the people who contribute to the work of art coming off as it finally does, using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s they share." 강조는 인용자.

4)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곧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동의어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인터넷 문학이 나름의 예술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위의 글: "In just the sense that there is now such a world where none was, hypertext fiction is new."

6) 邵燕君, 《传统生产机制的危机和新型机制的生成》, 《文艺争鸣》2009년 12기 참조.

착시키고, 작가들과의 계약제를 통해 작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유료 회원들 역시 클릭, 추천, 논평, 팬클럽 활동 등을 통해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대형 문학 사이트의 존립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인터넷 문학 활동이 '문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상, 그 참가자들이 기존의 문학 '전문가'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이는 특히 '비평'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주지하다시피 문학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예술 활동에서 비평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인터넷 문학 역시 추천 및 조회수에 기반한 순위표 시스템을 통해 나름의 비평적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다. 그러나 문학 비평가, 대학 교수, 작가 등 기존의 '문학 전문가'들 역시 꾸준히 인터넷 문학을 비평해 왔으며, 신문, 학술지, 서적,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두 예술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선점한 기존 문학 비평계의 일방적인 침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 공식적 인터넷 문학 대회의 평가 시스템이다. "2011년 12월 齐鲁晚报, 山东文学, 网易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제1회 인터넷 문학대상'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그중 "李掖平, 雷达, 吴义勤, 陈晓明, 孟繁华와 谭好哲, 贺仲明은 제8회 모순문학상 심사위원이자 산동성작가협회 부주석"이고, "13명 가운데 반 이상이 중국작가협회의 주요 인물이며, 단 한 명만이 인터넷작가 출신"이다.<sup>7)</sup>

이 명단이 암시하는 바는, 예술적인 가치, 문학적인 가치는 (전통적인) 문학 전문가만이 제대로 식별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주류문학'과 '인터넷 문학'은 실제로는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예술계이지만, '주류문학'의 전문가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문화적 권력을 통해 '인터넷 문학'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별개의 예술계에 속해야 마땅한 별개의 비평 시스템 중 어느 한 쪽이 권위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문학은 천박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 "동호회 수준"의 문학적 활동이 되고 만다.<sup>8)</sup>

물론 이런 권위적 비평 활동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 주류 문학 비평가들의 권위는 실제 인터넷 문학 공간 내에서는 종종 전복되고 조롱당한다. 인터넷에서 '80후'의 글쓰기를 "동호회 수준"이라고 평가했던 한 문학평론가는 성난 네티즌들의 공격과 조롱 앞에 자신의 블로그를 폐쇄해야만 했다.<sup>9)</sup> 이처럼 인터넷 문학의 현장에서는 별개의 비평적 기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문학의 작가들이나 그것을 평가하고 향유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기존의 문학적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현상 역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노신문학원에서 인터넷 문학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수많은 인터넷 작가들이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한 것, 유명 인터넷 작가 안니바오베이(安妮宝贝) 등이 인터넷이라는 창작 공간을 버리고 종이책으로 직접 출판에 나서는 것 등이 모두 이런 현상을 증명하는 예이다. 기존의 문학잡지, 학술지, 평론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문학적 '지식 권력'이 인터넷

7) 박영순, 「인터넷문학의 생산과 확산의 네트워크 — '起點中文網'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제 39집, 2013년, 314-315쪽.

8) 白烨, 《80后的现状与未来》, 《长城》2005年, 第六期.

9) 이 사건이 바로 '한백논쟁'이다.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참고,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사적 의미」(중국현대문학 61집, 2012년)을 참고할 것.

문학이라는 신생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마치 인터넷 문학의 질적 향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수준 차이’를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터넷 문학은 작가협회에 가입하거나 공식적인 문학상을 받기 위한 하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라캉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인터넷 문학 그 자체는 일종의 실재계에 내던져진 하나의 신생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류 문학’은 인터넷 문학에 대해 대타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문학이 문화적인 권위와 수준을 인정받아서 ‘정상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타자의 부름에 맞게 스스로를 억압하고 거세해야만 한다. 앞서 거론한 사례들은 필자가 보기에 모두 일종의 거세 과정이다. 우리 학자들의 입장에서 인터넷 문학을 바라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중국 인터넷 문학의 실제 향유자와 학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익숙한 담론과 비평의 언어로는 인터넷 문학이라는 실재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인터넷 문학의 일부(어쩌면 핵심적일지도 모르는 부분)를 거세해 버릴 위험이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자아 성립의 과정이며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예술계가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 혹은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의의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

## 2) 주류 문학 비평과 인터넷 문학

인터넷 문학을 전통적 '문학'의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해와 오류를 초래하는가? 단절과 연속, 통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터넷 문학에 대한 평가와 비평의 기준은 전통적 인쇄문학의 그것과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가? 또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예술계는 그 자신의 독립적인 평가와 비평의 기준을 확립하였는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히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예술계의 현실에 맞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비평의 수단/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결코 전통적 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전통적 문학이론이나 비평이 일종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게 되는 사태이지, 잘 발달된 이론과 기술의 적용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 문자를 통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기술과 그에 대한 분석으로서 전통적 문학 이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샤오옌젠의 글 〈面对网络文学：学院派的态度和方法〉은 무척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녀는 분명히 중국의 전통적인 학술/문학계의 입장에서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문학이 보여 주는 새로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엘리트주의적, 현실주의적 문학관이 인터넷 문학 연구에서 보여 주었던 문제점 또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새로움에 완전히 현혹되지 않고, '주제 분석'이나 '인물 분석'등의 전통적 '십팔반무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sup>10)</sup>, 이는 두 '예술계' 사이의 적극적 상호작용의 한 좋은 예라 하겠다.

그녀의 글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분석은, 인터넷 문학의 연구에 왕더웨이(王德威)가 제안하였던 '헤테로피아'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왕더웨이는 SF 소설을 분석하면서 푸코의 헤테로피아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샤오옌젠은 이런 방법을 인터넷 문학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 (문학)이론이 인터넷 문학의 분석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그녀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헤테로피아란 정상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 치료하고 교정하고 훈련시켜야 할 존재들을 모아 놓은 공간인데<sup>11)</sup>, 왕더웨이는 이 개념을 사용해 SF소설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를 계속 자극시키고 각성시켜 환상과 현실의 경계, 경전의 안과 밖의 경계를 되문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샤오옌젠은 이 논의를 확장시켜,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문학이 사실은 "현실상관성现实相关性"을 갖는 "제2세계"를, 즉 "현실에 존재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헤테로피아'를 만들어 냄으로써 현실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13)</sup>

그녀의 이러한 분석은, 현대 중국 사회에서 인터넷 문학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탁월한 학술적 해석이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 인터넷 문학의 여러 비현실적인 작품들은 '현실적'인 의미를, 즉 전통적 문학 이론계와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 문학을 단순한 현실도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견해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관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 문학을 항상 주류 문학(현실주의 문학)과의 관계 하에서 사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문학은 "등대"와도 같은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인터넷 문학은 현실을 벗어남으로써 아이러니하게 성립하는 "헤테로피아"로서의 현실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런 판단은 물론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지만, 필자는 오히려 이 관계를 뒤집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녀의 분석은 인터넷 문학이 적어도 겉보기에는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으며 주류 권력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문학이 언제나 이런 환상적/공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연애소설이나 도시소설, 군사소설, 심지어는 역사소설이나 차원이동소설(穿越小说)들조차 "제2세계"가 아니라 "제1세계"를 모방하는 것을, 즉 현실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예를 들어 무릉수에촌莫容雪村的 소설들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차이즈형찰智恒이나 안니바오베이安妮宝贝의 소설에도 환상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든데, 사실 이들이야말로 중국의 인터넷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인 것이다. 게다가 설명 환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묘사되는 "제2세계"내의 욕망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즉 인터넷 문학의 사용자들 자신의 노골적인 욕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샤오옌젠은 "고도 환상문학高度幻想文学"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히 겉모습만을 꾸며 낸 환상소설을 넘어서 "현실에 개입"하

10) 邵燕君, 앞의 글, 16쪽.

11) 위의 글, 5쪽.

12) 王德威, 《乌托邦, 恶托邦, 异托邦—从鲁迅到刘慈欣》, 《北京大学演讲记录》, 2011년. "……不断刺激、搅扰着我们：什么是幻想，什么是现实，什么是经典或正典以内的文学，什么是次文类或正典以外的文学……." 邵燕君은 이 글이 〈文艺报〉에 2011년 6-7월에 걸쳐 연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녀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文艺报〉상의 내용에는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邵燕君의 글 14쪽에 인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13) 邵燕君, 앞의 글, 15쪽.

14) 위의 글, 5쪽.

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문학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대사大師’의 수준에 도달한, 혹은 도달하고자 하는 인터넷 문학이 중국에 얼마나 있는가? 최근 베스트셀러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는 ‘워츠시홍스我吃西红柿’ 등의 작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관”의 욕망이다. 즉 금전, 권력, 무력, 이성관계 등 최근 인터넷 소설에서 추구의 대상이 되는 욕망은 모두 사회적으로 공인된 욕망이다. 이는 환환玄幻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족, 의리에 대한 긍정, 차원이동소설에서 드러나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사업의 성공, 권력자 남성과의 사랑 등)의 욕망, 군사소설에서 두드러지는 민족주의의 추구 등을 보면 명백하다.

요컨대, 인터넷 문학이 보여 주는 “제2세계”는 종종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헤테로피아로서의 효과는 종종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헤테로피아가 비정상적인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을 계속 상기시킴으로서 주류 질서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할 때, 현재의 주류 중국 인터넷 문학은 우리 사회가 몰두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들을 상상적인 방식으로 만족시켜 줌으로써, 그 가치를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샤오옌전의 제시하고 있는 순문학=유토피아, 인터넷 문학=헤테로피아라는 설정은 분명 인터넷 문학의 일부 ‘가능성’을 잘 포착한 것이기는 하나, 인터넷 문학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평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터넷 문학은 분명 낯설고 기괴한 것을 보여 주려고 시도하지만, 그런 낯선 느낌은 대단히 빨리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는 성질의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문학은 일종의 헤테로피아로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인터넷 문학의 사용자들에게, 그것은 현실과 유리된 독립적인 예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실천, 그들의 현실의 일부인 것이다. 인터넷 문학은 현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만큼의 거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의 현실을 구성하는 실천적 요소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샤오옌전의 분석이 전통적 문학 이론을 통한 인터넷 문학 연구가 가지는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인터넷 문학에서 헤테로피아의 가능성을 보아 내는 것은 정당한 분석이다. 게다가 그녀는 구체적인 작품(<지엔커间客>)에 대한 분석<sup>15)</sup>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음을 예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헤테로피아로서의 인터넷 문학이란 어디까지나 전통적 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가능성인 것이지, 실제 인터넷 문학의 사용자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아니다. 전통적 문학 이론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의미 있는 실천이 인터넷 문학 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또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통적 의미를 일종의 도덕적, 가치적 우위로서 인터넷 문학에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샤오옌전의 시도는 기존의 문학적 지식 생산의 한 훌륭한 예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지식 생산 시스템이 급변하는 현실에 미처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균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술적인 논리와 지식으로서 그녀의 주장은 별 무리 없이 성립한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 문학이 생산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로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지식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지는 여전히 기존의 학술적 담론에 의해 결정되

15) 위의 글, 15쪽.

고 있다. 단순한 재미의 추구, 시간 때우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문학을 매개로 벌어지는 각종 사교 활동 등의 기능들은 기존의 지식 체계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 돈벌이, 성공, 연애 등에 관한 세속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그보다는 더욱 심오한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이론과 분석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사실만이 학술적인 지식으로 인정받아 논문으로 작성되고 학술지에 게재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또 다른 종류의 의미들이 인터넷 문학의 실천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통 문학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의미들에도 항상 열린 태도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 인터넷 문학이 생산하는 ‘억압당한 지식’과 ‘집단지성’으로서의 인터넷 문학

인터넷 문학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예술계로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접한 여러 예술계와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기존의 문학 연구자들은 ‘문학’으로서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새로움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또 다른 종류의 의미들이 인터넷 문학의 실천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 푸코의 용어를 다시 빌려 오자면, 인터넷 문학이라는 네트워크, 즉 예술계는 일종의 ‘억압당한 지식 subjugated knowledge’<sup>16)</sup>을 생산하고 있다. 억압당한 지식이란 “부적절하거나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지식의 한 체계”를 가리킨다. 이는 과학이라는 지식의 위계질서 가운데서 밀바닥에 자리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아픈 사람이나 간호사의 건강에 대한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학적 활동 역시 문학에 대해 일종의 지식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官神》등의 환생물(重生类)은 중국에서 남성이 거둘 수 있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과 비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步步惊心》등의 차원이동물은 현대 여성이 중국의 역사, 여성의 지위, 성공과 연애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sup>17)</sup> 그리고 이런 지식의 생산은 작가라는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 그 네트워크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형 문학 사이트에는 비슷한 유형의 작품이 수천, 수만 편이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자적 링크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수백,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인터넷 문학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역으로 그 네트워크가 다시 더 큰 정보와 지식을 생산한다. 이런 지식은 기존의 문학 이론처럼 정교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학의 사용자들이 소유하고 또 생산해 내는 지식은 오히려 학술적 지식보다 더 생생하고 그들의 현실과 더

16) "a whole set of knowledges that have been disqualified as inadequate to their task or insufficiently elaboratednaive knowledges, located low down on the hierarchy, beneath the required levels of cognition and scientificity".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Colin Gordon ed. New York: Pantheon, 1980, p.82. 이 글에서 푸코는 두 종류의 억압당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만을 취한다.

17) 중국 인터넷 소설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马季的 글, 《类型文学的旨归及其重要形态简析》(《创作评谭》, 2011年06期)를 참조할 것. 차원이동물에 대한 소개로는 이상욱, 「현대 중국 여성소설의 담론세계 - 인터넷 소설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 24호, 2010년), 그리고 줄고,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문화산업 - 새로운 문화산업론을 위한 試論」(『중어중문학』 제 53집, 2012년 12월)을 참조.

욱 긴밀히 뒤얹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문학은 전자적 네트워크성을 통해 피에르 레비가 이야기하는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약간이나마 보여 준다. 집단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다.<sup>18)</sup>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굳이 문학에 한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언론, 사회운동, 정치, 경제 등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물론 중국 인터넷 문학이 보여 주는 것은 피에르 레비가 그리는 장밋빛 청사진과는 큰 거리가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해 철저히 상업화/산업화되어 가는 인터넷 문학은 인간을 진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모시키고 단편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문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 적어도 기존에는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종류의 문학적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존의 문학적 지식은 그것을 아예 배척해 버리거나, 아니면 포섭 가능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자기 내부로 포섭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태도 때문에 포착되지 않는 요소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배척되고 억압되는 것이 꼭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낯선 존재가 갖는 낯설음이 갖는 의미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白烨, 《80后的现状与未来》, 《长城》2005年第六期.

马季, 《类型文学的旨归及其重要形态简析》, 《创作评谭》, 2011年06期.

欧阳友权编, 《网络文学发展史》,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8.

邵燕君, 《传统生产机制的危机和新型机制的生成》, 《文艺争鸣》2009년 12기.

王德威, 《乌托邦, 恶托邦, 异托邦—从鲁迅到刘慈欣》, 《北京大学演讲记录》, 2011.

이상옥, 「현대 중국 여성소설의 담론세계 - 인터넷 소설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24호, 2010년.

박영순, 「인터넷문학의 생산과 확산의 네트워크 - '起點中文網'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제 39집, 2013년.

최재용,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문화산업 - 새로운 문화산업론을 위한 試論」, 『중어중문학』 제 53집, 2012.

-----, 《中国网络文学研究的困境与突破》, 북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적 의미」, 『중국현대문학』 61집, 2012.

피에르 레비 지음, 권수경 옮김,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9년.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Colin Gordon ed. New York: Pantheon, 1980.

Becker, Howard., "A New Art Form : Hypertext Fiction"

([http://www.uv.es/~fores/programa/becker\\_hypertextfiction.html](http://www.uv.es/~fores/programa/becker_hypertextfiction.html)).

18) 피에르 레비 지음, 권수경 옮김,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9년, 38쪽.